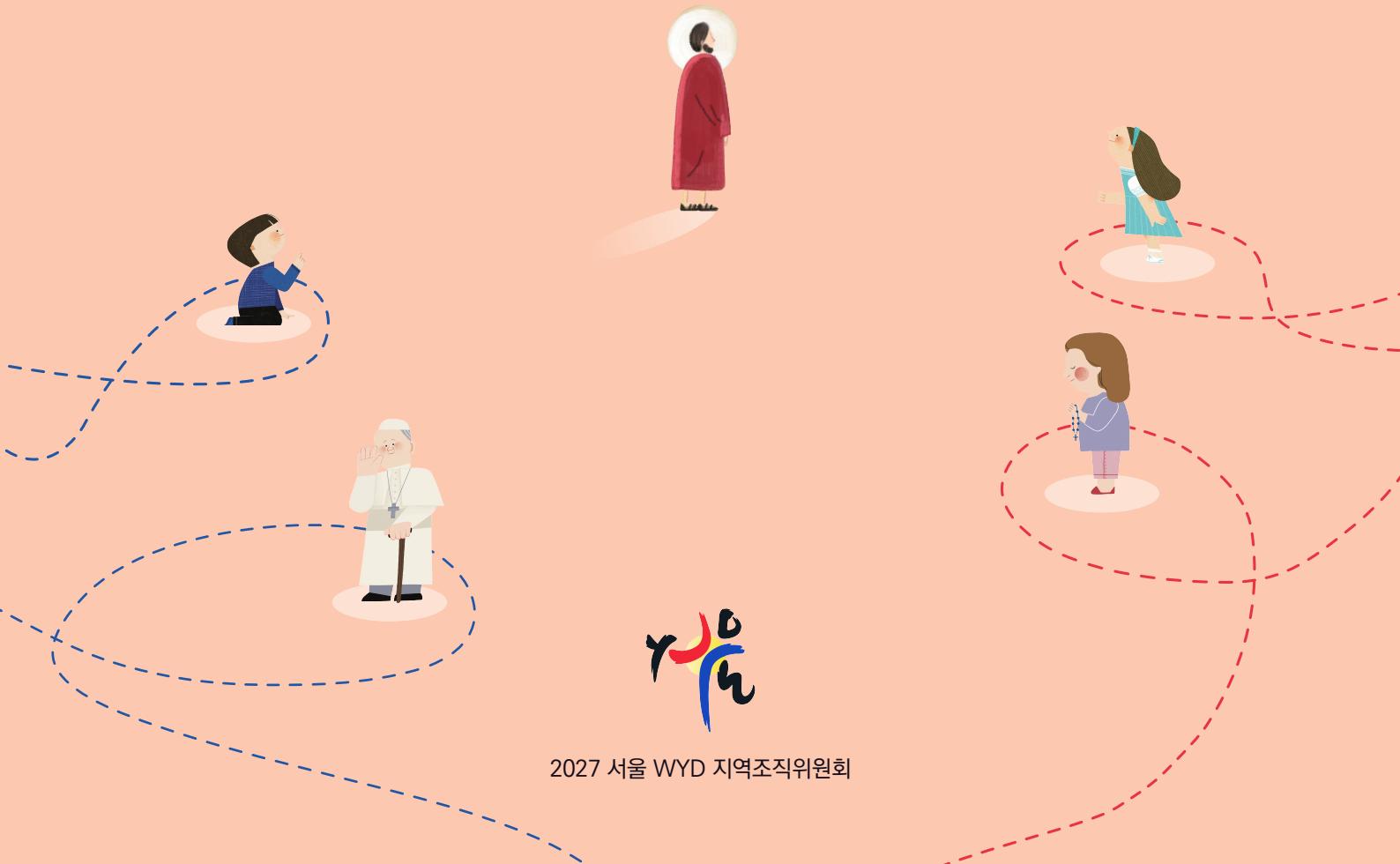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길 위에 선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

우리는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큰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이나 감정들 말고,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슬픔을 안겨 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나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또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고, 세상과 교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5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젊은이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주요 문제가 안정이나 평온함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안정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부한 중산층의 삶에 안주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위대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폭넓은 가능성을 경험하고자 열망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탈피하고픈 이러한 충동이 모든 세대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과 안정된 직장을 벗어난 어떤 것을 열망하고 참으로 위대한 무언가를 염원하는 것도 젊음의 일부입니다. [...]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고백록」라고 고백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호’가 새겨져 있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열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하느님을 지워 버려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세계의 일부 지역, 특히 서방의 현대 문화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신앙을 사회생활과는 무관한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연대, 노동, 가정의 의미처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하느님의 실종’ eclipse of God, 곧 일종의 기억 상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드러내 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러한 연유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써 보냈듯이, 뿌리를 내려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확실한 준거를 갖지 못하여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유효하고 진리나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참다운 자유는커녕, 불안과 혼돈, 맹목적인 유행 추종으로 이깁니다. 어린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한결같은 보살핌이 필요하듯, 젊은이 여러분도 이전 세대들에게서 삶의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확고한 판단 기준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차 청소년 주일 담화」 2011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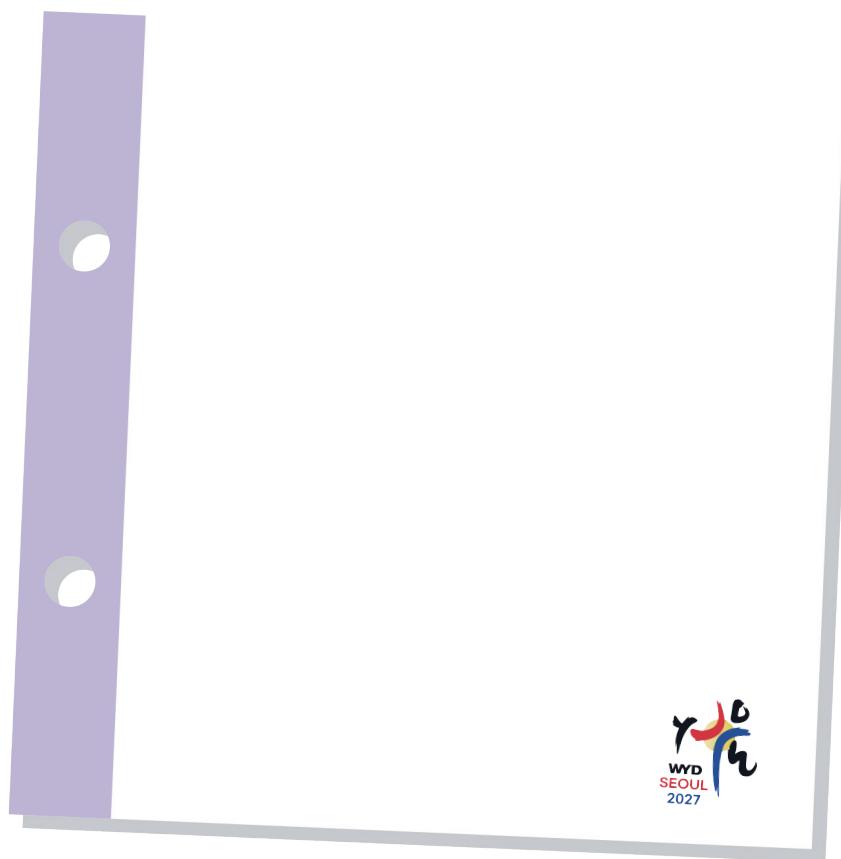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종이 한 장에 공동체 모두가 각자 삶의 목표를 그림으로 그려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완성된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히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과의 충만한 친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희망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온 존재가 당신
과 하나 될 때, 더 이상의 고통과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생명은 당신으로 온전히 채워진
참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친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은 우
리 인간의 소명이고, 모든 이가 열망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덧없는 쾌락,
한 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더 갈망하게 만드는 순간의 만족감,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점
점 더 공허하게 만드는 집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은 결정적으로 우리
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